

# 靑 공연예술 진수를 본다

## 2008 광주 아시아 공연예술제 30일 개막

2008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가 오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13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등에서 열린다.

공연예술제는 2회 행사를 치렀던 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조직 내부 문제 등으로 좌초하면서 전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연 예술 부문 프로그램의 명맥을 잇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해 마련한 행사다. 광주문화예술회관위원회가 주최하고 공

연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예술제는 시비와 국비 각 3억원 등 모두 6억원 규모로 행사가 치러진다.

갑작스럽게 조직이 꾸러지면서 준비 기간이 촉박하기는 했지만 추진위측은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등 다양한 초청 공연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참여인원은 한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300여명이다.



2008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에 참가하는 이스라엘의 '숨바꼭질 3, 4'

소리'가 선보이며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중국의 오보에 연주자 박장천과 협연무대를 마련한다.

또 인간문화재 안숙선의 국악 이야기, 젊은 소리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우의 '신곡악이야기'가 진행되며 가수 신중현과 신윤철·신대철 부자가 출연하는 특별 콘서트도 준비돼 있다.

### ▲다양한 이벤트 풍성

옛 광주시립미술관(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리는 문화 발리지로 꾸며진다. 생활 속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 박람회장으로 피아노 마을, 발레 마을, 비보이 마을, 영화 마을, 시인의 마을 등으로 꾸러진다. 공연예술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3시~7시까지 40여개의 크고 작은 공연과 강좌 등이 마련되며 시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험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다양한 작품의 리허설 과정을 직접 공개, 무대 뒤 표정을 살펴보는 '인리허설', 공연자와 지역 예술가들이 만나는 '아시아안고라'도 운영한다.

눈에 띄는 행사는 광주공연예술홍보단인 'Go to Asia!' 운영이다. 음악·연극 등 4개 장르 12명이 인도(갠지스강), 중국(만리장성), 일본(신주쿠), 중앙아시아(실크로드) 등 4개 장소로 떠나 2009년 1월 4일까지 문화광주 홍보를 진행하고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 폐막식 때 다큐멘터리로 상영할 예정이다. 문의 062-528-9207.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社告

##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 ... 12월 15일 마감

광주일보가 한국 문단의 내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문학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고료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고료 100만원)

### ■ 접수마감 : 2008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급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89)

###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처가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요.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09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 문예회관 1월 13일까지 7개국 참가

## 옛 시립미술관 자리에 '문화빌리지'

## 40여개 공연·강좌 ... 문화체험 기회

어른 '숨바꼭질 3, 4'를 선보이며 일본의 '도쿄 데스락'은 '러브'를 무대에 올린다.

무용 분야는 '아시아 컨템포러리'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키키키키키키', 베이징 시립무용단, 김복희무용단의 공연이 진행되며 박진수·오윤환 등 5명의 남자 무용수가 무대에 오르

는 '춤추는 남자들'도 준비돼 있다.

음악 분야는 중국·일본·한국·필리핀 성악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의 가곡(佳曲)',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영아트 부문 1위 입상자인 중국 첼리스트 보니안 티안이 출연하는 아시아의 첼로왕기, 아시아 5개국 민족음악 연주자들이 앙상블을 이룬 '대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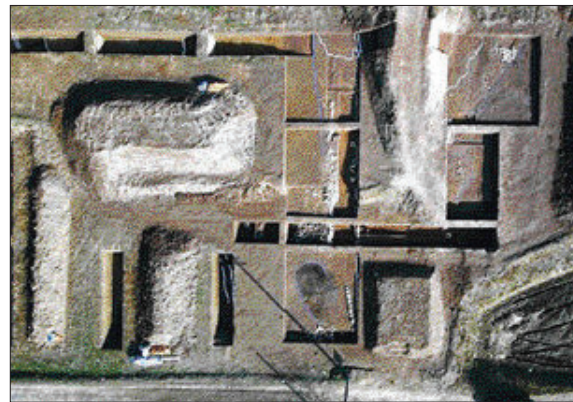
▲아시아 5개국 초청 공연 '불만' '선 라이트(Sun Light)'와 '문 라이트(Moon Light)'라는 타이틀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아시아 각국의 작품들이 공연된다.

눈에 확 띄는 작품은 없지만 다양한 실험성과 의미를 갖춘 작품들이 많이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듯하다. 개막식 공연을 제외하고 가장 처음 무대에 오르는 '아시아의 용'은 인도, 대만,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예술가들이 각국의 '용'을 소재로 한 공동 창작 작품이다.

'아시아 너비별 소풍'에서는 대사 없이 소리와 몸짓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스라엘 팀은 아이들의 놀이에서 이야기를 끌

# 영산강 유역 고대 성곽 정체를 드러내

### 나주 회진성 조사, 성벽 내외면 기초 석렬 배치 등 확인



남성벽 및 내부 전경.

통일신라시대의 성곽 유적인 것으로 알려진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회진성(會津城)에서 고대 성곽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기초 구조가 확인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9일 "시굴조사를 벌인 결과 성벽 내외면의 기초 석렬 배치와 나무기둥의

간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성벽은 크게 기단석렬(基壇石列)과 일종의 나무기둥인 영정주(永定柱), 흙을 쌓아올린 중심 토루(土樓)와 흙을 덧댄 보축(保築) 토루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벽 아랫부분은 너비 6.6~7.7m, 잔존 최고 높이가 약 4m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는 200m 정도다.

또 성벽 아랫부분 안팎은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돌로 쌓아 마감하고 일정한 구간마다 영정주를 박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성벽 구조로 볼 때 처음 쌓은 연대는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으나, 기저부 내부에서 백제계로 추정되는 그릇발췌 조각 등의 토기가 발견돼 사비시대 백제가 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진성은 지난 1984년 측량 도면이 학계에 보고되고, 전남대박물관이 남문터로 추정되는 곳 일부를 시굴조사하기는 했지만 축조시기나 방법 등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의병장 노인 '금계집' 국문 번역 발간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사와 지방사, 일본의 정세 등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의병장 금계공 노인(魯 諱)의 '금계집(日記)'이 국문으로 번역돼 발간됐다.

나주 출생인 금계공 노인은 전라도 관찰사 권 율의 휘하에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한 인물로 당시 일본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정세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한문본 금계집을 남겼다.

이번 국문본은 노기욱(51) 전남문

화유산해설사회 회장이 번역한 것으로 전남대 출판부에서 국16형(234×159mm) 크기, 467쪽 분량으로 펴냈다.

"임진 의병장 노인의 금계집 국역본"이란 제목의 이 책에는 시(詩), 문(文), 일기(日記), 부록, 연보(年譜) 등이 실려있으며 일본의 산천과 풍속, 일본 탈출경위와 중국에서 오며 동안 머물며 그곳 학자들과 나눈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노 회장은 "금계집은 당시 시대사



와 지방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한 권씩 한문본으로 된 옛 서적을 국문 번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회는 오는 12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고익배 30년 그림 열정 담은 첫 개인전

### 13~17일 대동갤러리

30여년 간 그림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한국화가 고익배(77)씨가 13~17일까지 광주시 동구 급남로 대동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지난 51년간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을 지도한 고씨는 지난 1979년부터 난파 김삼수 선생으로부터 수묵산수화를 사사하며 창작에 매달려 왔다.

이번 전시에서 고씨는 남해안, 영광 백수해안도로, 지리산, 구례 등지의 산수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수묵과 담채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색의 향연과 물처럼 흐르는 선의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묵을 덧칠해 바위의 강인함을 표현했으며 묵의 자연스러운 스미움을 통해 물의 잔잔한 흐름을 형상화했다.



'순백의 아름다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고씨는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초대 학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임상약학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사군자 부문

입선, 무등미술대전 한국화 특선 등을 수상했고 광주가톨릭미술가회전, 광주서중·일고동문미술회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22-00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의·치의학/약학

##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진학선명회** 12월 13일(토) 오후 2시~

###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b>일반영어</b> 김정애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b>일반영어</b> 황세민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b>유기화학</b> 이은정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b>일반생리</b> 박용기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b>언어치료</b> 김종민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b>일반 TEPS</b> 서정희 강사 연세대학교 석사

3주 동안 실시한 예비 대학원 대입시험 준비반은...  
**1월 2일** 기말시험 (1월 20일 입학)

# MDPass 의학원

광주 263-5453 북구청 맞은편 | 서울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 서울고시학원

www.ggsi.ac.kr | 514-4560